

치 사

오늘 2012 여수엑스포를 기해서 개최하는 WFB 제26차 대회의 출범식을 종도들의 원력을 담아 축원합니다.

2012 WFB 제26차 대회는 한국불교 1700년사에 큰 획을 긋는 세계 불교사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의 불교 생태환경 사상과 수행’이라는 주제는 불교계를 넘어 인류의 현안에 정확히 부합하는 의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계속에서 우리 사찰만큼 생태환경과 함께 호흡하고 보존하는 곳이 드물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입니다. 따라서 금번 한국대회는 한국 불교의 빼어난 수행환경을 세계불교계에 전하면서 창조적 전환점이 되는 큰 의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세계불교도들은 한국의 사찰문화에서 인류의 생태환경보존과 희망의 원천을 경험하면서, 수행자이면서 지도자로서 생명사상을 세계 곳곳에서 실천하는데 큰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다 인류는 많은 물질의 편리를 누리는 동시에 생명과 정신의 황폐라는 고질병을 쉽게 떨쳐내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생태환경의 변화와 파괴는 인과응보의 시련을 암시하고 있으며, 고도의 산업화와 소비문화는 고단한 삶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2 WFB 한국대회는 이런 인류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교가 사회와 인류에게 생태환경사상을 실천하면서 공동운명체로서의 동업중생이라는 동시적 존재성을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종단에서 실천하

는 자성과 쇄신 결사와 이 속에 담은 수행, 문화, 생명, 나눔과 평화라는 5대 분야의 실천은 한국불교를 넘어서 세계불교도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덕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으로 2012 WFB 제26차 한국대회를 준비해야 하며 오늘 출범하는 조직위원회의 모든 분들은 이 점을 깊이 새겨 함께 최선을 다하고, 한국불교가 21세기 세계불교의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 쓴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대회의 개최를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부와 여주시 및 전라남도, 그리고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종단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출범식을 위해서 참석하신 태국 WFB 본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대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시는 호남 여섯 본사 주지스님들의 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회장의 소임을 맡은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님께도 물심양면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WFB 한국 대회가 모두의 공덕으로 원만성취하기를 발원하며 머지않아 선업으로 회향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5(2011)년 11월 23일

2012 WFB 제26차 한국대회조직위원회 명예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